

고등학생의 성 의식과 성 행동에 관한 연구

오현미 · 박영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The sexual awareness and sexual behaviour of high school students

Hyun-Mee Oh · Young-Soo Park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paper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exual awareness and sexual behaviour of high school students would show the difference between an academic high school and a vocational high school.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a realistic and efficient education, which leads to the desirable sex ethics eventually. To do this, a comparative study was carried out to figure out the difference betwee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their actual awareness and behaviour of sex.

I put the following two ques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First, what is the difference in sexual awareness betwee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econd, what is the difference in sexual behaviour betwee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urvey conducted were 595 high school students in Kyunggi Province and I made the questionnaires referencing pre-studies. The SPSS program was used to get a frequency and a percentage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n, by applying t-text, χ^2 verification and interrela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regarding sexual awareness, there wasn't much difference in their idea of keeping virginity before marriage betwee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results obtained by analyzing the interrelation between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friends in terms of a will to keep virginity, it is found that there was a relevance in both academic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When they have a sex problem, it was friends that they are looking for consulting and both groups showed the same result. But pertaining to an experience of a sex education, the comparative analysis indicated a meaningful difference.

Second, as for sex behaviour, it was shown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going out with the other sex betwee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s well as in the degree of physical touch. However, not much difference was shown in controlling a sex desire between the two groups. As a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ex experi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terms of the object of their sex experience, the majority of students in the two groups chose a friend as their first answer and there was little difference.

From these results I can draw some conclusions that most of the students in both groups have a link with friends and parents in keeping their virginity. Furthermore, a meaningful difference in experiencing a sex education is presented between the two groups. With regard to the sex behaviour of high school students, a meaningful difference is shown in dating the other sex, a physical touch and a sex experience between the two groups.

Consequently, we realize that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in some variants on the sexual awareness and sexual behaviour of high school students between academic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의 초래와 홍수처럼 밀려온 외래문화로 인하여 전통적 가치체계의 붕괴, 가치관의 혼동 내지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 속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 의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혼전 순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성 개방 풍토가 만연되어가고 있다.

인간은 매우 성적인 존재이고, 성은 인간 행동과 심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가히 성 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의 개방과 성에 대한 정보의 홍수, 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크게 변하고 있으며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성의 중요성과 성에 대한 가치관이 과거 어느 때 보다 고조되어 있다.

1996년 한국 청소년 개발원이 서울지역 중고생 1천 1백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의 45.2%에서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뿐 아니라 홍문식(1990)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지역 내에서 인공유

산을 경험한 여성 중 미혼여성이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미혼남녀의 성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한다.

혼전 성행위는 성병과 AIDS 문제뿐만 아니라 혼전 임신 등 모자보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청소년 비행과도 연관되어 있어 보건학 관점에서는 물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수련, 1997). 사춘기에서 성인기까지의 기간에 있는 젊은이들의 성 행태는 다른 건강행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생식 건강은 물론 여러 가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상호 작용을 하게 되므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최근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생들의 성 지식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친구이고 다음으로 TV나 잡지라고 응답했으며 학교나, 부모의 영향은 대단히 적었다. 성 경험을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여자 고등학생의 성 경험률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혼전순결에 대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미국의 경우 사춘기 미혼여성의 20%가 임신 을 경험하였고 그중 60%가 혼외 혹은 미혼모에 의한 출생이며, 성 관련 질환의 75%가 15~24세 에서 발생하고, HIV 감염자 중 32%가량이 젊은 연령층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중이다(Prosta R & Jackson K, 1991).

앞으로 혼전 성 경험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이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혼전임신, 인공유산, 미혼모, 성병 등의 위험확률이 높아져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 우려된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고 음란 비디오 등 여과되지 않은 각종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사춘기에 속한 고등학생들의 성 태도와 성 의식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건강한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나 학교 혹은 가정에서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성문화의 변화기에 있는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의 성에 대한 의식과 성에 대한 행동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성 관련 제반 문제의 실상과 그에 대한 학교 성교육의 지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고등학생들의 성의 실태 등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이 겪고 있고, 바라는 것에 기초한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성 의식 및 성 행동의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그들이 겪고 바라는 것에 대한 적합하고 효과적인 성교육 방향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인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의 성 의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인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의 성 행동의 차이

는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1) 이 연구의 조사 대상 지역을 우리 나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내 4개의 학교를 임의 표집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설문 조사에 응답이 어느 정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었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 의식

성 의식이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태도로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성에 대한 관념이나 태도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성격적 바탕 위에서 결정되는데 그 요인은 시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 의식과 관련하여 혼전 순결의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2) 성 행동

본 연구에서는 성 행동과 관련하여 이성교제 경험, 신체접촉경험(키스, 포옹), 성 경험(성교행위) 유무로 보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대상학교의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가치, 설문 내용 및 기재요령 등을 설명한 후에 즉시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자료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595명(인문계 313명, 실업계 282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표 III-1. 연구의 대상자 (단위:명)

대상	성별		학교 유형	
	남	여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62	333	313	282
계	595		595	

2. 조사도구

이 연구를 위한 질문지의 기본자료는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하여 연구된 논문과 서적을 기초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설문지의 문항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선행연구자들 김수련(1999), 성낙중(1998), 이용미(1999)의 설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문항들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모두 3개 영역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문항, 성의식에 관한 항목 12문항, 성행동에 관한 항목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인문계와 실업계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대한 차이는 t검정 또는 상관관계,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인문계보다 실업계가 결혼 가정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과 동거형태는 '부모님과 동거' 97.8%, '친척과 동거' 1.0%, '형제·자매와 자취, 하숙' 0.6%, '친구와 자취' 0.3%, '기타' 0.3%의 순이었으며, 실업계 학생 또한 '부모님과 동거' 94%로 가장 많았고 '친척과

표 III-2. 설문지 구성 내용

구성 지표	구성 내용	문항 수	문항 번호
일반적 특성	학교유형, 성별, 부모의 생존여부, 동거형태, 부모 학력, 직업, 종교, 음주, 흡연, 흡입제, 스트레스,	12	1~12
성의식	본인 및 친구·부모의 순결 의지, 성 상담 대상, 성 또는 순결 교육	12	1~12
성 행동	이성 교제, 신체접촉, 성 충동 시 대처행동, 성 경험 여부 및 대상	6	1~6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명(%)

특 성	구 분	학교유형		계
		인문계	실업계	
성별	남	139(44.4)	123(43.6)	262(44.0)
	여	174(55.6)	159(56.4)	333(56.0)
부모의 생존여부	모두 생존	293(93.6)	234(83.3)	528(88.7)
	이혼·별거	9(2.90)	29(10.3)	38(6.4)
	한분 생존	10(3.20)	18(6.4)	28(4.7)
	모두 사망	1(0.30)	0	1(0.2)

표 IV-1. (계속)

특 성	구 분	학교유형		계
		인문계	실업계	
동거형태	부모님과 동거	306(97.8)	265(94.0)	571(96)
	친척과 동거	3(1.00)	9(3.2)	12(2.0)
	형제·자매와 자취, 하숙	2(0.60)	4(1.4)	6(1.0)
	친구와 자취	1(0.30)	1(0.4)	2(0.3)
	기타	1(0.30)	3(1.1)	4(0.7)
부의 최종학력	전문대졸 이상	52(16.6)	17(6.0)	69(11.6)
	고졸	204(65.2)	153(54.3)	357(60.0)
	중졸	43(13.7)	76(27.0)	119(20.0)
	국졸	14(4.50)	36(12.8)	50(8.4)
모의 최종학력	전문대졸 이상	16(5.10)	10(3.5)	26(4.4)
	고졸	198(63.3)	127(45.0)	325(54.6)
	중졸	73(23.3)	101(35.8)	119(20.0)
	국졸	6(8.30)	44(15.6)	50(8.4)
모의 직업	유	204(65.2)	186(66.0)	390(65.5)
	무	109(34.8)	96(34.0)	205(34.5)
종교	유	213(68.1)	166(58.9)	379(63.7)
	무	100(31.9)	116(41.1)	216(36.3)
계		313(100.0)	282(100.0)	595(100.0)

표 IV-2. 음주, 흡연, 약물, 흡입제, 스트레스 경험

단위 : 명(%)

특 성	구 분	학교유형		계	비고
		인문계	실업계		
담배	피우지 않음	258(83.2)	164(58.2)	422(71.3)	$\chi^2 = 47.12$ df = 1 p < .01
	피운다	55(16.8)	118(41.8)	173(28.7)	
음주	마시지 않음	193(61.7)	106(37.6)	299(50.3)	$\chi^2 = 44.64$ df = 1 p < .01
	마신다	120(38.4)	176(62.4)	296(49.7)	
약물 *	복용하지않음	301(96.2)	246(87.2)	547(91.9)	$\chi^2 = 17.011$ df = 1 p < .01
	복용함	12(3.8)	36(12.8)	48(8.10)	
흡입제 **	경험 없음	309(98.7)	255(90.4)	564(94.8)	$\chi^2 = 20.84$ df = 1 p < .01
	경험 있음	4(1.30)	27(9.60)	31(5.20)	
스트레스 종류	별로 느끼지 않음	35(11.2)	77(27.3)	112(18.8)	$\chi^2 = 90.01$ df = 3 p < .01
	학교성적	166(53.0)	50(17.7)	216(36.3)	
	이성교제	38(12.1)	31(11.0)	69(11.6)	
	기타	74(23.6)	124(44.0)	198(33.3)	
계		313(100.0)	282(100.0)	595(100.0)	

* 수면제, 정신안정제, 습관성 약물 등

**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동거' 3.2%, '형제·자매와 자취, 하숙' 1.4%, '기타' 1.1%, '친구와 자취' 0.4%로 나타났다.

2) 음주, 흡연, 약물, 흡입제, 스트레스 경험

조사대상 학생의 음주, 흡연, 약물, 흡입제, 스트레스 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흡연 경험은 '인문계' 16.8%, '실업계' 41.8%, 음주 경험은 '인문계' 38.3%, '실업계' 62.4%, 약물경험은 '인문계' 1.9%, '실업계' 4.5%, 흡입제 경험은 '인문계' 1.2%, '실업계' 9.6%로 모두 '인문계'보다 '실업계'가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1$)가 있었다.

스트레스 경험은 인문계의 경우 '학교성적'이 53.0%, '기타' 23.6%, '이성교제' 12.1%, '별로 느끼지 않음' 11.2%의 순이었으며, 실업계 학생은 '기타' 44.0%, '별로 느끼지 않음' 27.3%, '학교성적' 17.7%, '이성교제'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인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의 성의식의 차이

1)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혼전 순결의지의 차이

학교형태별에 따른 순결의지의 정도를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3.37 ± 1.22 , 실업계 고등학생 3.25 ± 1.13 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의 순결의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

홍원호(1995)의 연구에서도 혼전순결에 대해 중요시하지 않을 때 성행동이 더욱 개방적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던 것과 같이 본 연구

표 IV-3. 인문·실업계 고등학생의 혼전 순결의지의 차이 단위:5점 만점

학교형태 순결의지	M	SD	t	p
인문계	3.37	1.22	1.216	.164
실업계	3.25	1.13		

에서도 혼전순결의지를 묻는 문항에서 인문·실업계 모두 '그저 그렇다'가 많이 나타나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본인의 혼전 순결의지와 친구 및 부모 순결의지의 상관관계

본인의 순결의지와 친구 및 부모 순결의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IV-4>와 같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친구($r=.381$), 부모($r=.425$)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계 고등학생 역시 친구($r=.325$), 부모($r=.220$)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나 태도 등은 가정, 또래집단, 학교 등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본인의 순결에 대한 의지와 친구 및 부모의 순결의지와도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본인의 혼전 순결의지와 친구 및 부모 순결의지의 상관관계(r)

		본인	
		친구	부모
순결의지	인문계	.381**	.425**
순결의지	실업계	.325**	.335**

** $p < .01$

3) 성 상담대상의 차이

성 상담 대상의 차이는 <표 IV-5>와 같다. 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 상담대상을 묻는 질문에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친구, 성교육 전문가, 기타, 부모,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5$).

인문, 실업계 모두 상담대상을 친구와 하기를 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성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사나 부모와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극소수였다.

이수정(1995)은 청소년이 성에 대한 대부분의 대화를 친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고 장필화와 조형(1991)의 연구에서도 한국 사회의 경우

표 IV-5. 성 상담대상의 차이

단위 : 명(%)

구 분	성 상담대상					계
	교 사	부 모	친 구	성교육전문가	기 타	
인문계	10(3.2)	28(8.7)	150(47.9)	91(29.1)	35(11.2)	313(100.0)
실업계	6(2.1)	19(6.7)	138(48.9)	89(31.6)	30(10.6)	282(100.0)
계	16(2.7)	46(7.7)	287(48.3)	180(30.3)	65(10.9)	595(100.0)

$\chi^2 = 1.68$ $df = 4$ $p > .05$

청소년의 공식적인 성사회화 과정에 비공식적 기제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래 집단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성에 대하여 부모나 교사보다는 또래 집단인 친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 집단이나 대중매체로부터 성적인 고민들을 해결 받게 되면 단편적인 왜곡된 성정보를 갖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 학교 성교육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성교육 경험의 차이

성교육 경험의 차이는 <표 IV-6>과 같다. 성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인문계 고등학생의 62.9%, 실업계 고등학생 51.4%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표 IV-6. 성 교육 경험의 차이 단위 : 명(%)

구분	성 교육 경험		계
	유	무	
인문계	197(62.9)	116(37.1)	313(100.0)
실업계	145(51.4)	137(48.6)	282(100.0)
계	342(57.5)	253(42.5)	595(100.0)

$\chi^2 = 9.23$ $df = 1$ $p < .01$

3. 인문계 · 실업계 고등학생의 성행동의 차이

1) 이성교제 경험의 차이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이성교

제 정도는 <표 IV-7>과 같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이성교제 경험률이 55.8%, 실업계가 63.8%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p < .05$).

이로 보아 이성교제는 일부 탈선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분포되어 있는 현상이므로 이는 문화의 개방과 함께 성 상품의 범람, 학교, 학원, 교회 등 이성과 만나는 기회가 과거보다 증가된 이유로 이성과 쉽게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Guy 등(1993)은 청소년기의 이른 데이트는 빠른 성행동을 일으키고, 늦은 데이트는 성경험을 늦춘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도 매우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으며, 빠른 성행동은 부수적으로 항상 부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올바르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IV-7. 이성교제 경험의 차이 단위 : 명(%)

구 분	이성교제 경험		계
	유	무	
인문계	173(55.3)	140(44.7)	313(100.0)
실업계	180(63.8)	102(36.2)	282(100.0)
계	353(59.3)	242(40.7)	595(100.0)

$\chi^2 = 4.50$ $df = 1$ $p < .05$

2) 신체 접촉(키스, 포옹) 유무의 차이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신체 접촉의 차이는 <표 IV-8>과 같다. 인문계 고등

학생이 34.5%, 실업계 고등학생 55.3%가 신체접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현주 외(1993)의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신체접촉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응답에 뽀뽀(29%), 껴안기(12%), 만지기(6%), 성교(6%)의 순서로, 신체접촉은 안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6%정도로 이 연구에서도 많은 고등학생들에게서 신체접촉의 경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성행동은 부수적으로 부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성교제 정도의 두 집단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신체접촉정도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높아 적극적인 면을 보였으며 이것은 학생자신의 성에 대한 허용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상문(1995)은 청소년의 성적 허용성을 높이는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학업성적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실업계 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적으로 인한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IV-8. 신체 접촉(키스, 포옹)의 차이
단위 : 명(%)

구분	신체 접촉		계
	유	무	
인문계	108(34.5)	205(65.5)	313(100.0)
실업계	156(55.3)	126(44.7)	282(100.0)
계	264(44.4)	331(55.6)	595(100.0)
$\chi^2 = 26.03$ $df = 1$ $p < .01$			

표 IV-9. 성충동시 대처행동의 차이
단위 : 명(%)

구분	성충동시 대처행동						계
	자위행위	음란비디오, 서적보기	운동 취미	그냥 참음	성관계	기타	
인문계	19(6.1)	19(6.1)	86(27.5)	118(37.7)	14(4.5)	57(18.2)	313(100.0)
실업계	24(8.5)	21(7.4)	71(25.2)	94(33.3)	18(6.4)	54(19.1)	282(100.0)
계	43(7.2)	40(6.7)	157(26.4)	212(35.6)	32(5.4)	111(18.7)	595(100.0)
$\chi^2 = 3.80$ $df = 5$ $p > .05$							

3) 성충동시 대처 행동의 차이

성충동시 대처행동의 차이는 <표 IV-9>와 같다. “성충동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냥 참는다’에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고, 다음은 ‘운동, 취미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위행위’나 ‘음란 비디오나 서적보기’등의 간접적인 성충동 해소 행동도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12.2%,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15.9%로 나타났고, ‘성관계’등의 직접적인 성충동 해소 행동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4.5%,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6.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조원표(1993)는 남자 고교생이 성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은 성충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다른 조사에 의하면, 남자 고등학생 95%, 여자 고등학생 54%가 성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주외(1993)의 이런 성충동을 느낄 때 학생들은 대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위행위를 하면서 성충동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다. 송인숙(1995)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 전체의 61.8% 학생이 그냥 참고, 취미활동을 통해 성충동을 해소하는 학생은 12.1%, 자위행위 1.7%, 성행위를 하는 학생은 1.6%로 대부분 그냥 참는다가 이 연구에서도 가장 많게 나타났다.

4) 성 경험의 차이

학교 형태별 성 경험의 차이는 <표 IV-10>과 같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13.1%, 실업계 고등학생 2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냈

다($p < .01$). Susan(1992)은 미국의 9~11학년 학생의 54%가 성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이병우(1996)는 고등학생의 12.2%, 홍원호(1995)는 16.7%가 성경험을 하였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21%로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 경험이 미국에 비해 아직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지만 이미 많은 청소년이 성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련된 실태를 인문·실업계를 중심으로 두 집단간 차이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분별 있는 성윤리 확립을 위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성교육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내 4개 고등학교 595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기초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빈도와 백분율 및 t-test, 상관관계, χ^2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일반적 특성

음주, 흡연, 약물, 흡입계 경험은 인문계보다 실업계 고등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경험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이 가장 많았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기타'가 많게 나타났다.

2)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성 의식 차이

첫째 혼전 순결 의지의 평균은 인문계 고등학생 3.37 ± 1.22 , 실업계 고등학생 3.25 ± 1.13 으로 나타나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본인의 순결의지와 친구 및 부모의 순결의지, 성 경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문·실업계 모두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본인의 순결의지와 친구는 0.38, 부모 0.42, 성 경험 0.33으로 나왔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본인의 순결의지와 친구 0.32, 부모 0.22, 성경험 0.23으로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상호간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문제가 있을 때 상담대상으로 인문·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친구'가 많았고 두 집단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청소년이

표 IV-10. 성 경험의 차이 단위:명(%)

구분	성 경험		계
	유	무	
인문계	41(13.1)	272(86.9)	313(100.0)
실업계	84(29.8)	198(70.2)	282(100.0)
계	125(21.0)	470(79.0)	595(100.0)
$\chi^2 = 24.89$ $df = 1$ $p < .01$			

5) 성 경험대상의 차이

성 경험 대상의 차이는 <표 IV-11>과 같다. 인문계, 실업계 모두 성 경험의 대상으로 친구가 71.2%로 가장 많았지만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성문화연구소(1997)는 성행동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성행위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자친구라는 조사결과와 같이 친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미 성에 대해 노출되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IV-11. 성 경험대상의 차이 단위:명(%)

구분	성 경험대상			계
	친구	매춘부	기타	
인문계	31(75.6)	4(9.8)	6(14.6)	41(100.0)
실업계	58(69.0)	6(7.1)	20(23.8)	84(100.0)
계	89(71.2)	7(5.6)	26(20.8)	125(100.0)
$\chi^2 = 1.517$ $df = 2$ $p > .05$				

성에 대하여 부모나 교사보다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성 행동의 차이

첫째 이성교제 경험이 인문계 고등학생 55.8%, 실업계 고등학생 63.8%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성문화의 개방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올바른 지도와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신체접촉 정도의 차이는 인문계 고등학생 34.5%, 실업계 고등학생 55.3%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 충동시 대처 행동의 차이는 '그냥 참는다'가 인문·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 경험은 인문계 고등학생 13.1%, 실업계 고등학생 29.8%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청소년이 성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적 성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성 경험의 대상으로 인문계·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친구가 65.7%로 가장 많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들의 성 의식에서 인문·실업계 모두 본인의 순결의지가 친구 및 부모의 순결의지와 상호관련성이 있었고, 성교육 경험의 차이에서도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성 행동에서 이성교제 경험, 신체 접촉, 성 경험 모두, 두 집단별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성 의식과 성 행동에서 각 변인에 따라 인문·실업계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 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부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상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표현 자체가 억압되어 있고 학교 현장의 협조를 얻어 학교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답변에 의문이 있어 보다 정확하고 자료수집 방법을 달리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의식 및 성행동에 대한 단면적인 실태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성의식과 성행동과의 전후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고등학생들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강영삼 외(1997).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연구. 교육논총.
2. 구자옥(1991). 중등학교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권이중(1998). 청소년학 개론. 교육 출판사.
4. 김영수(1996). 한국 청소년 정책. 오늘의 청소년.
5. 김영화(1992). 청소년 성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 김종희(1990). 중등학교 여학생의 성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 김희명(1984)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 의식, 성 행동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 김수련(1997).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보건교육석사학위 논문.

9. 박현진(1999). 학교 성교육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 문휴자(1986). 매스미디어의 성역할 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1. 서울 YMCA(1987). YMCA 청소년 성교육 상담의 실제.
12. 서울특별시 교육 연구원(1984). 성교육 자료. (서울:농원 문화사).
13. 서울YMCA(1996). 청소년 성교육 교사강습회 자료집. 서울 YMCA청소년상담실.
14. 성교육지도 연구회(1982). 성교육 사례집. 서울:신원출판사
15. 심광원(1990). 대중매체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6.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나남.
17. 이범수(1986). 중학생의 성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 이상문(1995). 청소년의 성적허용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 이금명(1997). 성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 이현숙(1993). 중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1. 오치선 외(1999). 청소년 지도학. 서울:학지사.
22. 이계화(1988). 중고생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3. 양성숙(1992). 청소년의 성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4. 이승희(1991). 중학생의 성교육에 관한 일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5. 이흥구(1975). 교육사회학. 서울:재동문화사.
26. 장선화(1997). 음란물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7. 조원표(1991). 고교생의 성고민과 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8. 조정숙(1980).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9. 조양순(1998). 비행 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0. 주명자(1985). 유아교육기관 아동의 성교육지도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1. 송인숙(1997).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의식 실태와 성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2. 하재청외 3인(1992). 성의 과학. 서울:아카데미 서적.
33. 홍원호(1995). 남고생의 이성교제와 성의식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4. 현주외(1993).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읽기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5. Darling. Carol. et al(1984). Sex in Transition. 1900-1980.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 Gallagher. B. J(1968). A Review of Research on Imitativ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37. J. Dewey(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MacMillan Co.
38. Michale A. Carrela and Mary S. Calderone (1983). The SIESUS/New York University principle Basic to Education for sexuality, J.O.S.H. Vol.53.
39. S. Freud(1990). 설명환역. 프로이드 심리학 해설. 서울:선영사.
40. S. Freud(1905). Ther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New York. Basic Books.
41. Petosa R & Jackson K : Using the Health Belief Model to Predict Safer Sex Intension among Adolescent, Health Education Quarterly, Winter, 1991, 463-476